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성격장애: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

권 지 은 황 순 택[†] 이 승 복

충북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성격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으로 아동기 피학대 경험척도, 성격장애진단검사, 감정표현불능척도를 실시하였다. 총 649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먼저,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과 감정표현불능증, 성격장애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과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반사회성, 경계선, 회피성 성격장애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고, 의존성 성격장애는 정서적 학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성격장애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A군과 B군에 속한 성격장애에 대해서 감정표현불능증은 부분적 매개효과를 나타냈고, C군에 속한 성격장애에 대해서는 완전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성인기 성격장애의 발달과 관계가 있으며, 감정표현불능증을 거치는 발달경로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적 학대, 방임, 성격장애, 감정표현불능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순택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번지
Tel : 043-261-2187 / Fax : 043-271-1713 / E-mail / hstpsy@chungbuk.ac.kr

아동학대의 개념은 1960년대에 ‘피학대아동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부터 널리 알려졌다. 피학대증후군이란 부모나 양육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상태를 말한다(Kemper, Silverman, Steel, Droegemuller, & Silver, 1962). 많은 연구들은 아동기의 성적 및 신체적 학대경험이 낮은 자존감, 신체증상 호소, 우울, 불안, 물질남용, 자살경향, 성격장애 등과 같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다양한 행동적, 심리적, 신체적 부적응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Briere & Runtz, 1988; Johson, Cohen, Brown, Smailes, & Bernstein, 1999; Moeller, Bachmann, & Moeller, 1993; Mullen, Martin, Anderson, Romans, & Herbison, 1996; Rich, Gingerich, & Rosen, 1997; Sackett & Saunders, 1999; Spertus, Yehuda, Wong, Halligan, Seremetis, 2003; Yehuda, Halligan, & Grossman, 2001).

아동학대 개념은 초기에는 주로 신체적 학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점차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포함하여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이나 행동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정서적 학대는 비신체적 형태의 적대적, 거부적 학대 형태(Suzur, 1987), 아이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거부, 처벌, 심각한 형태의 정서 박탈(Kruase, Mendelson, & Lynch, 2003) 등으로 정의된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을 정서적, 지적 불구로 만들고 아동의 심리적 자아에 상처를 입히며, 가장 오래 지속되어 해악을 끼치는 주 양육자의 고질적인 행동패턴이다(고성혜, 1992). 아동에 대해 무관심하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일탈 행위에 대해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습관적이고 극단적인 말로 아동을 경멸하고 모독하고, 아동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

함된다.

학대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정서나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으며(van der Kolk & Fislser, 1994),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Kim, Talbot, & Cicchetti, 2009)을 보인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Briere와 Runtz(1988)는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가 불안, 우울, 대인관계 민감성, 해리의 예측변인임을 밝혔다. Gibb(2001)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지방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이러한 정서와 충동 조절의 어려움, 부적응적 대인관계, 부정적인 인지방식, 낮은 자존감, 우울, 신체화증상 등은 성격장애에서도 흔히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가 미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이들 변인과 성격장애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Johson, Cohen, Brown, Smailes, & Bernstein, 1999; Johnson, Cohen, Smailes, Skodol, Brown, & Oldham, 2001; Johnson, Cohen, Chen, Kasen, & Brook, 2006; Tyrka, Wyche, Kelly, Price, & Carpenter, 2009).

Johnson 등(1999; 2001)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집단에서 성격장애 발달이 4배 정도 많으며, 다른 유형의 학대나 축 1장애를 통제한 후에도 언어적 학대 즉, 정서적 학대가 성격장애 증상들을 예측하였다. 특히, 정서적 학대가 경계선, 자기애성,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성격장애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Tyrka 등(2009)의 연구에서는 학대경험(신체적/성적, 정서적/방임)이 있는 집단이 편집성, 경계선, C군 성격장애의 증상들을 보다 많이 보고하였다. Berenbaum,

Thompson, Milanak, Boden 및 Bredemeier(2008)은 신체적, 성적 학대를 통제 한 후에도 정서적 학대가 분열형 성격장애와 가장 강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 Power, Thomas, Ressler 및 Bradley(2010)의 연구에서도 여러 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가 분열형 성격장애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와같이 정서적 학대와 성격장애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가 다양한데, 이에 대해 Tyrka 등(2009)은 신체적 및 성적 학대에 비해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성격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도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공격성, 비행, 대인불안, 심리사회적 적응(김은경, 2009; 남순현, 임소영, 2006; 남순현, 최희경, 2006; 신혜영, 최해림, 2003; 이태준, 권정혜, 2007), 수치심과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라영선, 현명호, 차성이, 윤선영, 2010; 이정숙, 김은경, 2007; 전철은, 2003), 우울, 공격성(김은경, 이정수, 2009), 자살사고(박경, 2005) 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영향을 성격장애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성인기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다양한 매개요인들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Sifneos(1972)는 정서를 인지하는 능력과 정서를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능력의 결함을 보여서 정서적 느낌과 신체 감각을 변별하는데 곤란을 보이는 성격 특징을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라고 지칭하였다. 감정표현불능증이 안정적인 성격특질인지 일시적인 상

태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 일부 연구들은 감정표현불능증을 심리적 스트레스, 의학적 질병, 음주 등의 결과에 따른 상태-의존적인 것으로 간주하였지만(Hendryx, Haviland, & Shaw, 1991; Wise, Mann, & Hill, 1990), 대다수의 연구들은 감정표현불능증을 우울, 신체화장애, 식이장애, 물질관련장애 등의 정신과적 장애에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일관성있고 안정적인 성격특성이라는 견해를 지지한다(Taylor, Bagby, & Parker, 1997; Luminet Bagby, & Taylor, 2001; Saarijärvi, Salminen, & Toikka, 2001). Honkalampi, Hintikka, Antikainen, Lehtonen, 및 Viinamaki(2001)는 주요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이 성격장애 C군 환자들에게 뚜렷하며, 우울증이 회복된 후에도 감정표현불능증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안정적인 성격특성이라는 견해를 지지하였다. 또한 감정표현불능증은 손상된 사회기능, 관계왜곡과 관계가 있으며, 갈등회피, 거리두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등과 같은 관계경향성과 상관을 나타냈다(Taylor et al., 1997). Vanheule, Desmet, Meganck 와 Bogaerts(2007)의 연구에서는 감정표현불능증이 냉정한/거리감 있는, 자기주장적이지 않은 성격특질과 관련이 있었다. 신체 증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양상이며(Bouchard, Target, Lecours, Fonagy, Tremblay, Schachter, & Stein, 2008; Choi-Kain & Gunderson, 2008), 회피성, 강박성, 자기애성 성격장애 등은 미숙한 정서각성측면과 타인과 언어를 사용하여 정서를 의사소통하는 것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가 지지되어왔다(Semirari, Carcione, Dimaggio, Falcone, Nicolò, Procacci, & Alleva, 2003). Bach, de Zwaan, Ackard, Nutzinger, & Mitchell(1994)의 연구에서는 분열형, 의존성, 회

피성 성격장애 성향과 감정표현불능증이 관계가 있었다. 사례연구에서도 회피성,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들은 자신의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Dimaggio, Procacci, Micolò, Popolo, Semerari, Carcione, & Lysaker, 2007). 이렇듯 감정표현불능증은 성격장애의 전형적인 특징인 다양한 심리적 증상들 및 부적응적 대인관계 증상들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감정표현불능증이 성격장애와 관계가 있다는 가설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Grabe, Spitzer, & Freyberger, 2004).

한편, Spitzer, Siebel-Jürgers, Barnow, Grabe, 및 Freyberger(2005)는 감정표현불능증의 대인관계가 불안정 애착패턴과 뚜렷하게 일치하는, 냉정하고 사회적으로 회피적인 행동 특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학대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하기 어렵고, 정서에 반응하는 것을 위협적이거나 어려운 것으로 여기게 된다(Goldsmith & Freyd, 2005). 이와 같은 양육환경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정서나 감정에 대한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정서인식에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감정표현불능증은 아동기의 학대경험과 관계가 있다는 가설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Berenbaum et al., 1996; van der Kolk et al., 1994).

이와같이 아동기 학대 경험과 감정표현불능증, 성격장애 간의 각각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 중에는 특정 성격장애를 대상으로 한 가설을 검증한 연구도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기 학대 경험과 DSM의 성격장애와의 관계를 검증한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한 것이

다. 또한 Affi 등(2011)은 현재의 선행연구들이 하나 혹은 제한된 성격장애에만 초점을 맞추어져있는 것(예를들어, 성적학대와 경계선 성격장애)을 제한점으로 지적하였다. 즉, 이러한 구체적인 관계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아동기의 역경과 성격장애들에 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동기의 역경과 모든 성격장애에 대한 보다 폭넓은 탐색이 현존하는 연구결과들을 더 의미 있게 확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과 성격장애 간의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국내에서는 우선적으로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이 어떠한 성격장애와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DSM-IV 성격장애 전체에 대해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1)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경험이 성격장애, 감정표현불능증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2) 감정표현불능증이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성격장애를 매개하는가 이다.

방 법

연구대상

충북지역 대학생 6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한 척도 전체를 한 점수로 응답하는 등으로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한 척도 내에서 무응답이 5개 이상인 자료를 제외한 총 64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학생은 356명(55%), 여학생은 293명(45%)이었다. 남학생의 평균연령은 21.21세(SD=2.66), 여학생의 평균연령은 19.81세(SD=1.78)였다.

측정도구

아동기 피학대 경험척도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이주성(2004)이 기존의 문항들을 선정하여 수정한 아동기 피학대 경험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기 피학대 경험척도는 신체학대 10문항, 정서적 학대 9문항, 방임 9문항, 성학대 9문항, 부모간 폭력 목격 10문항의 5가지 하위유형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없었다’(0점)에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4점)의 5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문항 예, ‘지나친 기대와 관심으로 간섭하고 통제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비난하거나 화를 내셨다’)와 방임(문항 예,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관심이 없었다’)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82와 .84였다.

성격장애진단검사

성격장애 진단검사는 DSM-IV의 성격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우리나라 현장의 임상가들이 성격장애에 대해 경험적 및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장애 개념을 추출하여 만든 성격장애 진단준거 목록(황순택, 1995)을 이용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서재삼과 황순택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일반인의 성격평가와 성격병리를 포함한 성격장애 연구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척도는 총 113문항이며 4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소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성격장애성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각 소척도는 편집

성(PN) 14문항, 분열성(SZ) 11문항, 분열형(ST) 12문항, 반사회성(AS) 19문항, 경계선(BL) 15문항, 연극성(HT) 14문항, 자기애성(NC) 13문항, 회피성(AV) 11문항, 의존성(DP) 15문항, 강박성(OC)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재삼과 황순택(2006)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53 ~ .75였고, 본 연구에서 각 소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59 ~ .79로 나타났다.

감정표현불능척도

Baggy, Parker와 Taylor(1994a; 1994b)가 제작한 20-Item Alexithymia Scale(TAS-20)에 기초하여 신현균과 원호택(1997)이 보완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감정표현불능증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3문항,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인 1(Difficult Identifying Feeling)은 ‘정서를 확인하고 정서와 정서 각성에 대한 신체 감각을 구별하는 데서의 곤란(문항 예, ‘기분이 상했을 때는 내가 슬픈 건지, 두려운 건지, 화가 난 건지 분간이 안 된다’), 요인 2(Externally Oriented Thinking)는 ‘외부지향적인 사고(문항 예, ‘다른 사람들의 기분(감정)이 어떤지 알아보는 것보다는 일상행동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요인 3(Difficulty Describing Feeling)은 ‘정서를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데서의 곤란(문항 예, ‘친한 친구에게도 내 감정을 쉽게 표현하기 어렵다’),’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아주 그렇다’(4점)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신현균과 원호택(1997)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82, 각 하위척도의 Cronbach's α 는 .73-.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합산점수만을 사용하였으며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8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감정표현불능증, 성격장애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에서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성격장애에 대해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첫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넷째,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값이 세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보다 커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매개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결 과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감정표현불능증, 성격장애 간의 관계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과 감정표현불능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감정표현불능증은 정서적 학대($r=.16, p<.01$) 및 방임($r=.22, p<.01$)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과 성격장애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은 편집성($r=.28, r=.25, p<.01$), 분열성($r=.21, r=.27, p<.01$), 분열형($r=.30, r=.22, p<.01$), 반사회성($r=.17, r=.22, p<.01$), 경계선($r=.24, r=$

$.16, p<.01$), 회피성($r=.15, r=.13, p<.01$) 성격장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정서적 학대 경험($r=.13,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방임과는 유의미 상관관계가 없었다($r=.08, ns$)(표 1).

또한 감정표현불능증은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반사회성, 경계선, 회피성, 의존성 성격장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r=.38, r=.53, r=.46, r=.22, r=.29, r=.46, r=.37, p<.01$)을 나타냈고, 연극성 성격장애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r=-.14, p<.01$)을 나타냈다. 자기애성, 강박성 성격장애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r=-.05, r=.00, ns$)(표 1).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과 성격장애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과 성격장애 간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반사회성, 경계선, 회피성 성격장애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방임과 정서적 학대 경험을 합산하여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정서적 학대만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독립변인인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종속변인인 편집성 성격장애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고($t=7.55, p<.001$), 둘째, 독립변인인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매개변인인 감정표현불능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5.82, p<.001$). 셋째,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감정표현불능증은 편집성 성격장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5.80, t=10.30, p<.001$). 넷째,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회귀

표 1. 방임 및 정서적 학대 경험과 감정표현불능증, 성격장애 간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방임													
2 정서적 학대	.45**												
3 감정표현불능증	.22**	.16**											
4 PN	.25**	.28**	.38**										
5 SZ	.27**	.21**	.53**	.46**									
6 ST	.22**	.30**	.46**	.59**	.43**								
7 AS	.22**	.17**	.22**	.31**	.27**	.43**							
8 BL	.16**	.24**	.29**	.44**	.27**	.58**	.65**						
9 HT	-.05	.01	-.14**	.07	-.32**	.11**	.26**	.48**					
10 NC	-.07	-.04	-.05	.24**	-.15**	.21**	.23**	.33**	.57**				
11 AV	.13**	.15**	.46**	.38**	.58**	.32**	-.12**	.16**	-.20**	-.14**			
12 DP	.08	.13**	.37**	.29**	.28**	.29**	-.15**	.19**	.06	-.06	.74**		
13 OC	.02	.05	.000	.317**	.02	.15**	-.21**	.06	.09*	.21**	.28**	.30**	
M	3.6	2.7	36.62	31.77	19.35	25.81	40.01	35.61	37.71	36.88	26.18	37.88	34.24
SD	5.3	4.0	10.91	5.12	4.48	5.54	5.61	5.43	4.67	4.34	5.06	5.44	4.59

* $p < .05$, ** $p < .01$ (2-tailed).

PN: 편집성 성격장애, SZ: 분열성 성격장애, ST: 분열형 성격장애, AS: 반사회성 성격장애, BL: 경계선 성격장애, HT: 연극성 성격장애, NC: 자기애성 성격장애, AV: 회피성 성격장애, DP: 의존성 성격장애, OC: 강박성 성격장애.

계수값이 세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회귀계수 값보다 컸다($\beta=.29$, $\beta=.21$)(표 2). 편집성 성격장애 외에 다른 성격장애들이 종속변인으로 투입된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Baron과 Kenny(1986)의 요구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즉, 감정표현불능증을 통제한 후에 각 성격장애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설명량이 감소하였다(표 2). 성격장애별로 살펴보면, 편집성 성격장애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설명량이 8.1%에서 4.2%로, 분열성 성격장애

에서는 8.3%에서 3.1%로, 분열형 성격장애에서는 8.5%에서 3.4%로, 반사회성 성격장애에서는 5.3%에서 3.5%로, 경계선 성격장애에서는 5.1%에서 2.8%로 감소하였다. 이는 감정표현불능증이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과 각 성격장애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회피성 성격장애에서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설명량이 2.6%에서 0.3%로 감소하고 t 값이 유의미하지 않아($t=1.51$, ns) 감정표현불능증이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R^2	R^2 change	F change	β	t
감정표현불능증	PN	.081			.29	7.55***
	정서적 학대 및 방임	.051			.22	5.82***
PN	감정표현불능증	.141		106.02***	.38	10.30***
	정서적 학대 및 방임	.183	.042	33.61***	.21	5.80***
감정표현불능증	SZ	.083			.29	7.64***
	정서적 학대 및 방임	.050			.22	5.82***
SZ	감정표현불능증	.273		243.22***	.52	15.60***
	정서적 학대 및 방임	.304	.031	28.56***	.18	5.34***
감정표현불능증	ST	.085			.29	7.76***
	정서적 학대 및 방임	.050			.22	5.82***
ST	감정표현불능증	.201		162.99***	.45	12.77***
	정서적 학대 및 방임	.240	.034	32.89***	.20	5.74***
감정표현불능증	AS	.053			.23	6.02***
	정서적 학대 및 방임	.050			.22	5.82***
AS	감정표현불능증	.047		31.76***	.22	5.64***
	정서적 학대 및 방임	.082	.035	20.13***	.19	4.96***
감정표현불능증	BL	.051			.23	5.91***
	정서적 학대 및 방임	.050			.22	5.82***
BL	감정표현불능증	.083		58.54***	.23	7.65***
	정서적 학대 및 방임	.111	.028	20.10***	.17	4.48***
감정표현불능증	AV	.026			.16	4.16***
	정서적 학대 및 방임	.053			.23	5.96***
AV	감정표현불능증	.212		169.18***	.46	13.00***
	정서적 학대 및 방임	.215	.003	85.76***	.06	1.51
감정표현불능증	DP	.017			.13	3.34**
	정서적 학대	.027			.16	4.15***
DP	감정표현불능증	.139		102.08***	.37	10.10***
	정서적 학대	.143	.004	52.85***	.07	1.81

*** $p < .001$

PN: 편집성 성격장애, SZ: 분열성 성격장애, ST: 분열형 성격장애, AS: 반사회성 성격장애, BL: 경계선 성격장애, AV: 회피성 성격장애, DP: 의존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정서적 학대만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설명량은 1.7%에서 0.4%로 감소하였고, t 값이 유의미하지 않아($t=1.81$, ns) 감정표현불능증이 정서적 학대와 의존성 성격장애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성격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은 성격장애 A군의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성격장애 모두와, B군의 반사회성과 경계선 성격장애와, C군에서는 회피성과 의존성 성격장애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표현불능증은 성격장애에 따라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을 통해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과 성격장애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반사회성, 경계선, 회피성, 의존성 성격장애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나 방임과 성인기의 성격장애 발달 간의 관계는 근래에 수행된 몇몇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Bierer et al., 2003; Johnson, Cohen, Brown, et al., 1999; Johnson, Cohen, Smailes, et al., 2001; Powers et al., 2010; Tyrka et al., 2009). Johns 등(1999, 2001)의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가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경계선, 자기에성 성격장애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Tyrka 등(2007)의 연구

에서는 학대경험(신체적/성적, 정서적/방임)이 있는 집단이 편집성, 경계선, C군 성격장애의 증상들을 보다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이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반사회성, 경계선, 회피성, 의존성 성격장애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제외하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공통적으로 A군 성격장애(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성격장애)와 관련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편집성 성격장애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고, 분열성 성격장애는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광범위한 고립양상과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제한된 감정 표현이 필수 증상이다. 분열형 성격장애는 친밀한 대인관계에 대한 고통, 그러한 관계를 맺는 제한된 능력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대인관계에서의 손상, 인지적, 지각적 왜곡, 기이한 행동 등의 광범위한 양상을 나타낸다(APA, 1994). 이렇듯 A군 성격장애의 공통적인 특성은 대인 관계의 어려움인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방임과 정서적 학대 경험이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어려움과 고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B군에 속하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경우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냉담하고, 냉소적이고, 타인의 감정이나 권리, 고통에 대해 무관심한 점과 관련이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대인관계와 자아상, 정동에서의 불안정성, 심한 충동성이 다양한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실제적이거나 상상에 의한 유기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며, 지

속적이고 현저하게 불안정한 자아상이나 자아 지각이 특징인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보인다 (APA, 1994). Smith, Ireland과 Thornberry(2005)는 아동기의 학대경험(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Pereda, Jimenez-Padilla 및 Gallardo-Pujol(2011)은 성적 학대와 성격장애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여 성적 학대가 특히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며, 신체적, 성적 학대 같은 직접적 폭력 뿐 아니라 언어 폭력 등을 포함한 정서적 학대 또한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은 C군의 회피성 성격장애와 의존성 성격장애와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성 성격장애는 사회활동의 억제, 부적합함,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민성을 특징으로 하며, 의존성 성격장애는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과도한 욕구가 있는, 순종적이고 의존적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장애이다(APA, 1994). 이러한 결과는 학대경험(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있는 사람들이 C군 성격장애의 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 Tyrka 등(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연구자들은 이런 증상들이 신뢰, 안전감, 안정감, 유연성, 자기-효능감, 정서 조절 등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런 특성들은 안전하고 촉진적인 양육환경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는 환경에서 C군 성격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Tyrka 등, 2009).

또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성격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은 A군에 속한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성격장애에 대해 8.1-8.5%, B군에 속한 반사회성,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해서는 5.1-5.3%, C군에 속한 회피성,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는 1.7-2.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본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A군에 속한 성격장애를 상대적으로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자들이 유전적, 환경적, 부모요인 등이 모두 성격장애의 발달에 중요한 원인임을 밝히고 있지만, 성격장애 발생에 대한 탐색영역은 아직 초창기이다(Johnson et al., 2006). 성격장애는 부분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부적응적이거나 결핍된 사회화의 결과로 가정되기 때문에 학대나 방임과 같은 부모의 양육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환경은 가정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경험 또한 성격장애 발달에 위험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격장애에는 유전적, 환경적, 부모요인 등과 관계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단일변인으로써 가지는 설명력은 의미가 있다. 다만 신체적, 성적 학대에 비해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성격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 비교적 소수이기 때문에 (Tyrka et al., 2009) 특정 성격장애의 발달에 어떤 경로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탐색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Pereda 등(2011)이 지적인 것처럼 종단연구를 통해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성격장애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과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격장애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

임과 감정표현불능증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감정표현불능증이 성격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A군에 속한 성격장애들에 대해서는 14.1-27.3%, B군에 속한 성격장애들에 대해서는 4.7-8.3%, C군에 속한 성격장애들에 대해서는 13.9-21.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 제시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은 A군 성격장애를, 감정표현불능증은 상대적으로 A군과 C군의 성격장애를 잘 예측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감정표현불능증이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과 성격장애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해본 본 결과, 부분적 또는 완전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과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반사회성, 경계선 성격장애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은 부분적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즉, 아동기의 방임 및 정서학대 경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감정표현불능을 매개로 하여 성격장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회피성 성격장애와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는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즉, 회피성 성격장애와 의존성 성격장애의 발달에 있어서 감정표현불능증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자신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행동을 억압하는 회피성 성격장애의 특성과 타인의 돌봄과 지지를 얻기 위해 불합리한 요구도 감내하는 의존성 성격장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경험이 감정표현불능증과 경계선 성격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Berenbaum(1996)의

연구결과를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경험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경험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포함한 정신분열성, 정신분열형, 편집형, 반사회성, 경계선, 의존성, 회피성 성격장애에 영향을 미치며, 감정표현불능증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다만 감정표현불능증이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성격장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C군에 속한 성격장애를 제외하고는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추후에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성격장애에 이르는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 각 성격군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매개변인을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성격장애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성격장애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특정 성격장애로 한정하지 않고 성격장애 전체를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추후연구에서 선행연구들을 포함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특정 성격장애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가설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본 연구에서 성격장애에 대한 정서학대 및 방임과 정서표현불능증의 설명력이 다양하게 나타났다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각각의 성격장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변인을 탐색하여 각 성격장애별 혹은 각 성격장애군별 발달경로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성격장애는 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집단(APA, 1994)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경험에 대해 회상적 자기보고식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대학생은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하였지만, 비교적 잘 적응한 것으로 생각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심각한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집단이나 성격장애집단과 같은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기관 등에 의뢰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추적연구나 종단연구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성격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타당화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축 1의 증상을 통제하지 않고 성격장애만을 측정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축 2 장애에 대한 우울(Case et al., 2007; Kool, Dekker, Duljens, de Jonghe, & Puite, 2003) 등의 영향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축 1 증상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대경험과 성격장애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의 하위요인과 성격장애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각 요인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요인 2(외부지향적인 사고)는 요인 1(정서를 확인하고 정서와 정서 각성에 대한 신체 감각을 구별하는 데서의 곤란)과 요인 3(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데서의 곤란)과는 달리 성격장애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방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부분적인 요인만을 취해 하나의 변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았고, 총점이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성격장애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정표현불능증 총점을 매개변인으로 하였다. 또한 TAS-20을 바탕으로 한국판 자기보고

형 척도를 개발한 신현균과 원호택(1997)의 연구에서도 요인1과 요인3과 달리 요인2는 신체화 경향이나 건강염려 경향과도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척도의 구성요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이 미치는 다양한 부적응 증상을 성격장애 측면에서 탐색하고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경 (2009).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내적통제성과 공감능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37-56.
- 김은경, 이정숙 (2009). 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18.
- 남순현, 임소영 (2006). 부모의 언어학대와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953-967.
- 남순현, 최희경 (2006). 신체학대, 공격성 및 아동기 비행간의 관계: 모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97-908.
- 라영선, 현명호, 차성이, 윤선영 (2010). 아동기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복합 외상후 스

- 트레스 증상 및 용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21-34.
- 박 경 (2005).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31-147.
- 서재삼, 황순택 (2006).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73-288.
- 신현균, 원호택 (1997). 한국판 감정표현 불능 증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19-231.
- 신혜영, 최혜림 (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2), 295-307.
- 이정숙, 김은경 (2007).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수치심과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39-356.
- 이주성 (2004). 아동기 피학대 경험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태준, 권정혜 (2007). 피학대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377-389.
- 전철은, 현명호 (2003).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763-776.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PA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fifi, T. O., Mather, A., Boman, J., Fleisher, W., Enns, M. W., MacMillan, H., & Sareen, J. (2011). Childhood adversity and personality disorders: result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population-based stud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5, 814-822.
- Bach, M., de Zwaan, M., Ackard, D., Nutzinger, D. O., & Mitchell, J. E. (1994). Alexithymia: relationship to personality disorders. *Comprehensive Psychiatry*, 35, 239-243.
- Bagby, R. M., Parker, J. D., & Taylor, G. J. (1994a). The twenty-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I. Item selection and cross-valid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8(1), 23-32.
- Bagby, R. M., Parker, J. D., & Taylor, G. J. (1994b). The twenty-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II. Convergent, discriminant,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8(1), 33-40.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e-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renbaum, H. (1996). Childhood abuse, alexithymia and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sychomatic Research*, 41(6), 585-595.
- Berenbaum, H., Thompson, R. J., Milanak, M. E., Boden, M. T., & Bredemeier, K. (2008). Psychological trauma and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3), 502-519.
- Bouchard, M.-A., Targer, M., Lecours, S., Fonagy, P., Tremblay, L.-M., Schachter, A., & Stein, H. (2008). Mentalization in adult attachment

- narratives: reflective functioning, mental state, and affect elaboration compared. *Psychoanalytic Psychology*, 25(1), 47-66.
- Briere, J. & Runtz, M. (1990). Differential adult symptomatology associated with three types of child abuse histories. *Child Abuse & Neglect*, 14, 357-364.
- Bierer, L. M., Yehuda, R., Schmeidler, J., Mitropoulou, V., New A. S., Silverman, S. M., & Siever, L. J. (2003). Abuse and neglect in childhood: relationship to personality disorder diagnoses. *CNS Spectrums*, 8, 737-754.
- Case, B. G., Biel, M. G., Peselow, E. D., & Guardino, M. (2007). Reliability of personality disorder diagnosis during depression: the contribution of collateral informant report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5, 487-491.
- Choi-Kain, L. W. & Gunderson, J. G. (2008). Mentalization: ontogeny, assessment and application in the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 1127-1135.
- Dimaggio, G., Semerari, A., Carcione, A., Nicolò, G., Popolo, R., Semerari, A., Carcione, A., & Lysaker, P. H. (2007). Poor metacognition in narcissistic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s: analysis of four psychotherapy patient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4, 386-401.
- Gibb, B. E. (2002). Childhood maltreatment and negative cognitive styles.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2), 223-246.
- Goldsmith R. E., & Freyd, J. J. (2005). Effects of emotional abuse in family and work environment. *Journal of Emotional Abuse*, 5(1), 95-123.
- Grabe, H. J., Spitzer, C., & Freyberger, H. J.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alexithymia,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1, 1299-1301
- Hendryx, M. S., Haviland, M. G., & Shaw, D. G. (1991). Dimensions of alexithymia and their relationships to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6(2), 227-237.
- Honkalampi, K., Hintikka, J., Antikainen, R., Lehtonen, J., & Viinamäki, H. (2001). Alexithymia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comorbid cluster C personality disorder: A 6-month follow-up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5(3), 245-254.
- Johson, J. G., Cohen, P., Brown, J., Smailes, E. M., & Bernstein D. P. (1999). Childhood maltreatment increases risk for personality disorders during early adulthood: findings of a community-based longitudinal stud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 600-606.
- Johson, J. G., Cohen, P., Chen, H., Kasen, S. & Brook, J. S. (2006). Parenting behaviors associated with risk for offspring personality disorder during adultho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3, 579-587.
- Johson, J. G., Cohen, P., Smailes, E. M., Skodol, A. E., Brown, J., & Oldham, J. M. (2001). Childhood verbal abuse and risk for personality disorders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Comprehensive Psychiatry*, 42, 16-23.
- Kemp, C. H., Silverman, F. N., Steele, B. F., Droegemueller, W., & Silver, H. K. (1962).

- The battered-child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1(1), 17-24.
- Kool, S. S., Dekker, J. J., Duljens, I. J., de Jonghe, F. F., & Puite, B. B. (2003). Changes in personality pathology after pharmacotherapy and combined therapy for depressed patient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17(1), 60-72.
- Kim, J., Talbot, N. L., & Cicchetti, D. (2009). Childhood abuse and current interpersonal conflict: the role of shame. *Child Abuse & Neglect*, 33, 362-371.
-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Abuse & Neglect*, 27, 199-213.
- Luminet, O., Bagby, R. M., & Taylor, G. J. (2001). An evaluation of the absolute and relative stability of alexithymia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70, 254-260.
- Moeller, T. P., Bachmann, G. A., & Moeller, J. R. (1993). The combined effects of physical sexual and emotional abuse during childhood: long-term consequences for women. *Child Abuse & Neglect*, 17, 623-640.
- Mullen, P. E., Martin, J. L., Anderson, J. C., Romans, S. E., & Herbison, G. P. (1996). The long-term impact of the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A community study. *Child Abuse & Neglect*, 20, 7-21.
- Pereda N, Jiménez-Padilla R, Gallardo-Pujol D. (2011). Personality disorders in child sexual abuse victims. *Actas españolas de psiquiatría*, 39(2), 131-139.
- Powers, A. D., Thomas, K. M., Ressler, K. J. & Bradley, B. (2010). The deffential effects of child abus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n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Comprehensive Psychiatry*, Retrieved August 04, 2010, from <http://elsevier.com/locate/comppsy>.
- Rich, D. J., Gingerich, K. J., & Rosen, L. A. (1997).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associated psychopath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1, 13-28.
- Saarijärvi, S., Salminen, J. K., & Toikka, T. B. (2001). Alexithymia and depression A 1-year follow-up study in out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1, 729-733.
- Sackett, L. A., & Saunders, D. G. (1999). The impact of differents of psychological abuse on batter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4, 105-117.
- Semerari, A., Carcione, A., Dimaggio, G., Falcone, M., Nicolò, G., Procacci, M., & Alleva, G. (2003). How to evaluate metacognitive funtioning in psychotherapy? The metacognition assessment scale and its application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0, 238-261.
- Sifneos, P. E. (1972). *Short-Term Psychotherapy and Emotional Crisis*. Combrige, Mass, Harvad University Press.
- Smith, C. A., Ireland, T. O., & Thornberry, T. P. (2005). Adolescent maltreatment and its impact on young adult antisocial behavior. *Child Abuse & Neglect*, 29(10), 1099-1119.

- Spertus, I. L., Yehuda, R., Wong, C. M., Halligan, S., & Seremetis, S. V. (2003).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symptoms in women presenting to a primary care practice. *Child Abuse & Neglect*, 27, 1247-1258.
- Spitzer, C., Siebel-Jürgers, U., Barnow, S., Grabe, H. J., & Freyberger, H. J. (2005). Alexithymia and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74, 240-246.
- Szur, R. (1987). Emotional abuse and neglect. In P. Maher(ed.), *Child Abuse: The Educational Perspective*. Oxford: Blackwell.
- Taylor, G. J., Bagby, R. M., & Parker, J. D. A. (1997). Disorders of affect regulation. Alexithymia in medical and psychiatric ill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Tyrka, A. R., Wyche, M. C., Kelly, M. M., Pricie, L. H., & Carpenter, L. L. (2009).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ult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Influence of maltreatment type. *Psychiatry Research*, 165, 281-287.
- van der Kolk, B. A., & Fisler, R. E. (1994). Childhood abuse & neglect and loss of self-regulation. *Bulletin of Menninger Clinic*, 58, 145-168.
- Vanheule, S., Desmet, M., Meganck, R., Bogaerts, S. (2007). Alexithymia and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3, 109-117.
- Wise, T. N., Mann, L. S., & Hill, B. (1990). Alexithymia and depressed mood in the psychiatric patient.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54(1), 26-31.
- Yehuda, R., Halligan, S. L., & Grossman, R. (2001). Childhood trauma and risk for PTSD: relationship to intergenerational effects of trauma, parental PTSD and cortisol excre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 733-753.
- 원고접수일 : 2011. 9. 06.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1. 11. 14.
게재결정일 : 2011. 12. 02.

Emotional Abuse, Neglect, and Personality Disorders: Mediating Role of Alexithymia

Jieun Kwon

Soontaeg Hwang

Seongbo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hood abuse(emotional abuse and neglect), alexithymia, and personality were examined. Participants were 649 university students. The Childhood Abuse Questionnaire, The Korean Alexithymia Scale, and The Korean Personality Disorders Test were administer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Emotional abuse and neglect were associated with alexithymia and personality disorders(paranoid, schizoid, schizotypal, antisocial, and borderline, avoidant, and dependent); 2) Alexithymia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personality disorders(paranoid, schizoid, schizotypal, antisocial, borderline, avoidant, and depend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re risk factors for alexithymia and personality disorder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 emotional abuse, neglect, alexithymia, personality disorder.